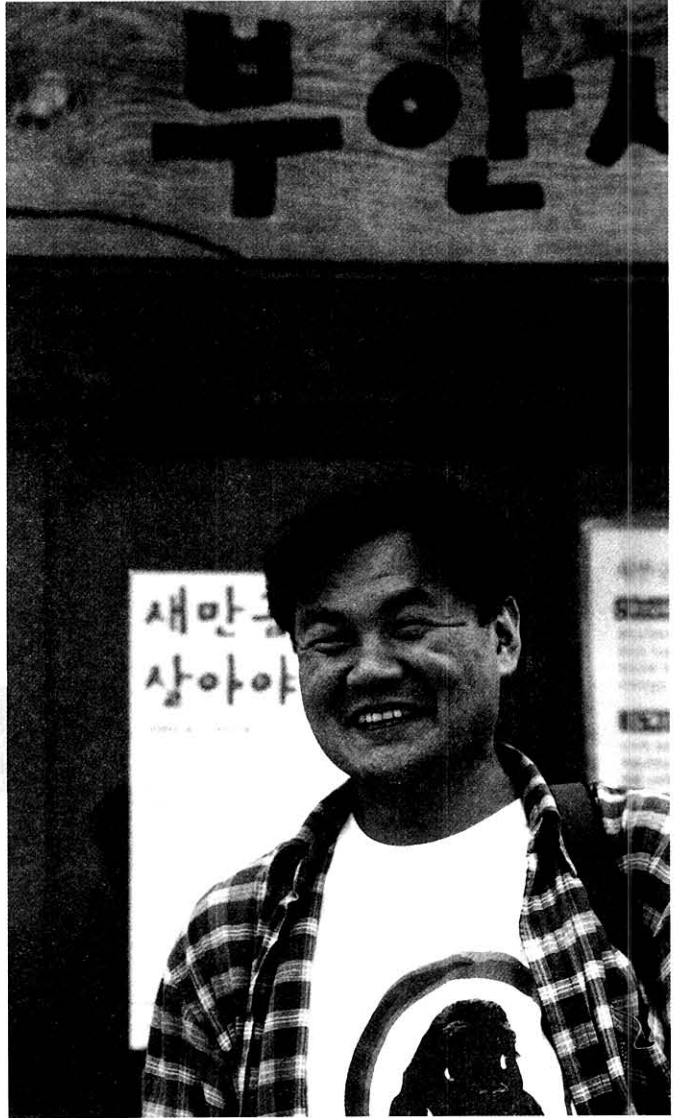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민들과 같이 아파하고 그들의 생활을 공유하면서 찍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3년에 한편이나 10년에 한편이 제작 됩니다. 물론 자본의 문제도 있지 만요... 하지만 전 결과가 모든 걸 평가해 준다고 생각 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새만금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부안군 계화마을 어민들의 지난 3년간 일상을 영상에 담아낸 이강길(37·다큐멘터리 감독)씨는 영상작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말했다.

내가 부안에 도착한 날, 그는 ‘새만금사업 반대’를 위해 삼보일배(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하는 마을 주민들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이미 언론에서 알려진 것처럼 문규현 신부님과 수경 스님은 장장 두 달에 걸쳐 지나간 삼보일배의 고행을 하고 있다. 계화마을 주민인 고은식씨와 염전우씨도 두 성직자만큼은 아니어도 지역민의 의지로 갯벌부터 마을입구까지의 3km 거리를 삼보일배하고 있다. 벌써 일주일째라고 했다. 이씨의 카메라는 그들에게 맞춰졌다.

이씨는 4년 넘게 부안에서 어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부대꼈다. 비린내와 땀내를 함께 맡으며 이네들과 고기를 잡고 새만금 반대집회가 있으면 카메라를 들고 함께 했다. 일이 있을 때면 이른 새벽부터 한쪽에는 그물을 메고 다른 한쪽에는 카메라를 메고 일을 했다. 그에게는 고기잡이도 소중한고 렌즈를 통해 그들을 담아내는 일 역시 소중한기 때문이다.

### 카메라로 보는 새만금

그래서인지 마을에서 만나는 모든 이가 형님이요 누님이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 부안에 온지 4년, 그는 이미 부안청년이 되어있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바로 70분짜리 [어부로 살고 싶다-새만금간척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부안 어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이 영상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눈물겹다. 사용하던 편집실 사용료가 밀려 그간 찍어놓은 가편집 필름을 압류당할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한동안 발만 동동 구르다 마지막에 문규현 신부님께 찾아가 간곡히 부탁했다. 아마 그때 문신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작품은 빛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무슨 특별한 게 있어서 그가 부안에 오게 된 건 아니다. 영화 제작 집단에서 일하고 있을 때 새만금 제작의뢰가 들어왔다. 여러 가지로 기회란 생각이 들어 별고민 없이 작업을 맡기

로 했다. 한 곳에서 꾸준히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 또한 시험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새만금 개발은 지난 87년 5월 '서해안 간척사업'이란 이름이 붙은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계획이다. 군산 외항의 오식도로부터 고군산군도, 그리고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 이르는 총 34킬로미터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총 40,100ha(1억2천만평)의 간척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씨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란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 사업이 발표된 게 1987년 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쌀이 없어서 굶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 갯벌을 농경지로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는 통일대안론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을 위한 식량조달 차원이라고 말했으니... 정말 한심한거죠."





만나고 싶었습니다



새만금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발표를 한 지난해 5월25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는 많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그리고 부안주민들의 강행저지 집회가 열렸다. 70이 넘는 마을 할머니 몇 분과 아주머니들이 젊은이들보다 더 결사적으로 싸웠다. 하지만 정작 그에게는 단상에 올라가 목이 갈라져라 소리를 지르고 공무원들과 싸우는 주민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렌즈를 통해서 본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다.

“부안은 대도시처럼 앵벌이나 거지가 없어요, 왜냐면 갯벌에 나가서 하루만 일해도 그날 먹고 살 수 있거든요. 해도 뜨지 않는 새벽에 경운기 몰고 바다에 나가 사는 어민들의 삶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생활이고 생계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걸 못하게 하면 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삼형제 중 둘째인 이씨는 공부 잘하는 형과 아우를

두었다. 이 때문에 ‘경쟁’이나 ‘질투’는 아니지만 자신이 다른 형제들보다 공부를 못한다면 그것 말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다른 뭘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바로 영화였다.

“처음에는 그저 좋아하는 수준이었죠. 어찌다 영화판 현장에 스텝으로 있게 되었고 그 뒤 일본에 갈 기회가 생겼는데 거기서 자연다큐를 하게 됐어요. 의외로 저하고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들어 와서 다큐독립영화를 제작하는 ‘푸른영상’에 들어갔어요. 영화만이 저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씨가 독립적으로 나서 작업한 것은 [어부로 살고 싶다] 한 작품이지만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들인 노력과 시간은 그에게 새만금 사업을 제대로 보게 해주었기에 무엇보다도 비할 수 없을만큼 소중한다.

### 다큐작업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

인권영화제나 언론, 매체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고 상도 타고 싶지 않느냐고 짐짓 속내를 떠보았다. 인터넷과도 거리가 멀고 그런 정보도 잘 몰라 시기를 놓친 적이 많기도 하지만 자신의 작품을 영화제에 출품하거나 어딘가에 결과물처럼 내놓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느끼지 않는단다. 오히려 마을 회관에서 동네어르신들 모셔놓고 그가 찍어놓은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 긴장되고 어떤 평가가 나올지 조심스럽다는 게 그의 고백이다.

“시화호를 보세요. 담수로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의 새만금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농수용은커녕 시화호가 통째로 썩었습니다. 뻥히 잘 못되었다는 게 드러나는데 왜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답답함 심정을 토로하는 그의 말 속에서 새만금 사업이 시작되고 방조제가 뻗어나가기 시작하면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고, 바다 물갈이 막히면서 갯벌이 썩어간다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묻어나왔다. 농민에게 눈과 밭이 목숨이라면 바다와 갯벌은 어민들 목숨이나 마찬가지이며 조상 대대로 살아 온 삶의 방식이란 것이다.

“새만금 사업이요? 저는 무조건 중단해서 갯벌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들어간 돈이 몇 백억, 몇 천억이라 지금 그만 두면 손해라는 말은 도둑이 담장 넘었으면 반드시 도둑질을 해야 하는 논리와 똑같은데 이걸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바다아~가 육지라면, 바다아~가 육지라면 해지는 부두에서 울고 있지 않을 것을...”

새만금 간척지에 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회를 파는 늙은 아낙의 끈적한 노랫가락이 들린다.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정말 바다가 육지가 된다면 이 어민들은 뭘 먹고 살까?

〈편집부〉



바다와 갯벌은 어민들의 목숨이나 다름 없다.